

제7회 광주일보문학상 이원화 씨 인터뷰

“행복과 감동 주는 작품 쓰고 싶어요”

“올해는 첫 소설집도 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아 더욱 기쁩니다. 정경과 폭력이 휩쓸고 간 뒤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를 담은 장편소설에 도전하겠습니다.”

“제7회 광주일보문학상(이하 광일문학상)을 수상한 이원화(43)씨는 “소설만 쓰고 싶었다”는 다부진 꿈을 꾸고 있다.

완도 금일도에서 태어난 섬소녀 이씨는 시험 전날에도 소설책을 읽어 집안 어른들로부터 “제발 오늘만 교과서를 바라”는 아단을 맞을 정도였다.

방송통신대 국문과와 광주여대 사회교육원에서 제대된 글을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5년간 광주·전남작가회의의 간사를 지내며 작가의 꿈을 더욱 키웠다. 유명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탄탄한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소설 저작권이 작가 사후 50년이나 되니 내가 너희에게 큰 유산 남겨줄 것이다’는 농담을 하곤 해요. 오래 기억되는 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소설을 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2006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지만 먹고 사는 일이 급하고 간절해질수록 글은 더욱 멀어졌다.

지난 10월 담양군 대덕면 문학 창작스튜디오 ‘글을 낳는 집’에 입주한 것도 운영 같은 소설과 ‘글장 승부’를 보기 위해서였다.

“동료 작가들과 좋은 글에만 매달릴 수 있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첫 소설집 ‘길을 묻다’(문학들 펴냄)를 출간한 데 이어 ‘글을 낳는 집’에 입주한 것은

작가 인생의 전환기가 됐다.

그녀는 이곳에서 돈과 성의 노예가 된 남녀의 이중성을 담아낸 광일문학상 당선작 ‘해 저무는 봄 날’을 집필했다.

이 작품은 맞선을 본 남자가 180억원대 자산 가라는 설정이 흥미롭다. 재혼을 하기 위해 만난 남녀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호감이 아닌, 재산과 성이 전부라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녀는 작가로서의 가장 좋은 덕목으로 꾸준함을 꼽았다. 좋은 글을 쓰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을 낳는 집”은 자연 속에서 글에만 집중할 수 있어 창작의 속도도 빨라졌고, 여유가 생기자 보니 그녀는 최근 장편소설에도 도전하고 있다.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소설을 집필하고 있어요. 5·18민주화운동이 끝난 뒤 남겨진 희생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긴 호흡으로 풀어보고 싶어요. 또 고향 금일도를 무대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고단한 현대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3부작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일보 문학상은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 1년 간 신작 및 기발 표작(2010년 11월 1일 이후)을 대상으로 한다.

“통속에 대한 씩씩하고 시니컬한 야유 매력적”

심사평

소설 부분의 작품들 모두 수준이 상당했지만, 각기 개성이 달라서 심사하기가 어려웠다. 이 작품보다 싶은 한 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논의 끝에 세 편의 소설을 최종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유년기의 외상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기차는 달린다’는 폭력적이고 탐미적인 이미지로 돋보이고 인간의 숨은 본성에 대한 프로이드적 성찰이 좋았지만, 습작상의 치열함과 치기가 같이 느껴져서 아쉬웠다.

‘시간의 신전’은 만만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도전이 인상적이고, 진지하고 꼼꼼한 서술도 매력적이었지만, 손목시계가 나온 사진을 수집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이라는 심오한 문제를 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해 저무는 봄날’은 가볍고 경쾌한 펜으로 현대인, 특히 돈과 허영과 성취 욕구에 뻘뻘한 통속적인 중년 남자의 처부를 시니컬하게 드러낸 소설이다. 소품이라는 인상을 주는 약점이 있지만, 통속성을 야유하는 홍상수의 영화를 볼 때와 같은 씩씩하고 야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매력 이 있었다.

긴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해 저무는 봄날’의 통속에 대한 시니컬한 야유가 주는 매력을 피해 가지 못했다. 수상자에게 축하를 보낸다.

시 부문 출품작은 일상 관념어가 많았다. ‘맨발’이지만 땅의 울림을 이어지게 하는 곳만큼, 날랜 변화를 압축해 실체가 담긴 시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소심한 소녀의 소보로 굶기’(김윤미), ‘슬픈 꽃’(송재진) 등의 작품은 관심을 끌었다.

아동문학 부문에는 동심을 이해하는 수준 높은 통속이 많았다. 동시에 충실하면서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맛과 영양가를 함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결말부의 반전이 인상적인 ‘엄마의 남자 친구’ 흥미있는 동심체함을 다룬 ‘붕어빵 포장마차 개업식’, ‘지난날 어두운 역사상을 재구성한 ‘꽃바람의 눈물’ 등이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 노창수·이승우·윤삼현)

광주 소극장 축제 공연 뭐해요?

14~16일 '안녕, 안녕...' 25~26일 '청춘소동' 12월 2~3일 '버스를 기다리며'

광주연극협회(회장 최영화)가 주최하는 제14회 광주 소극장 축제 관객들을 찾아간다.

올 축제는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과 알·아리의 ‘280일간의 데이트’로 문을 열었다.

14~16일에는 유피씨어터의 ‘안녕, 안녕...’이 공연된다. 극단대표 김근형 씨가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선생, 생, 실직자, 작가 등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려는 일곱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최진선·이지혜·김해리 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654-4300.

극단 DIC의 ‘청춘소동’은 오는 25~26일까지 소극장 공연일번지에 열린다.

안뜰체홉의 유명 희곡인 ‘청춘소동’은 남편과 사별한 뽀빠리와 죽은 남편의 빛을 받으려 나타난 스미로노프, 루가의 딸 나탈리아와 그녀에게 청혼하려는 이완이 그려가는 좌충우돌 사랑이야기다.

정문희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이현숙·이정진·손가라 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514-4327.

마지막 작품은 12월 2일과 3일 에

소극장 ‘퐁’에서 열리는 극단 청춘의 ‘버스를 기다리며’다.

일지리를 찾기 위해 서울에 도착한 남일은 갑작스레 10여년전 과거의 서울역 ‘버스정류장’ 앞에 서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노숙자 석공과 함께 영별이 소년 동호, 창녀 미소 등을 만나며 현재는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게된다.

원광연씨가 직접 희곡을 쓰고 연출을 맡았으며 윤희철·정태석·양태훈 씨 등이 무대에 선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엘리스 줌마들’의 발칙한 상상

‘에어 플레이2’ 11일 유·스퀘어문화관

주부 연극동아리 ‘엘리스 줌마들’이 ‘에어 플레이2’를 무대에 올린다. 11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엘리스 줌마들’은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시민 퍼블릭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연극동아리다.

올 4월부터 매주 한차례씩 모임을 가져온 9명의 주부들은 신체 훈련, 즉흥 상황극 등을 통해 연극을 조금씩 알아갔으며 특히 머리를 맞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 직접 대본을 완성했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에어 플레이 2’는 떠남의 현상인 공황을 배경으



로 여성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이다.

한편 푸른연극마을은 2012년을 함께 할 ‘엘리스 줌마들 3기’도 모집한다. 신청수 15명. 무료 관람. 문의 062-511-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밤...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14일 문예회관 소극장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이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선율의 드로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인 정유하·임현신씨의 창작곡 발표회로 꾸며진다.

레퍼토리는 ‘빛의 도시’, ‘회상’, ‘회상II’, ‘아리랑을 위한 빛의 어울림’, ‘바다, 그리고 꽃과 빛’이다. 연주는 아시아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가 맡

는다.

2부에서는 가야금 앙상블 ‘타래(Ta,래)’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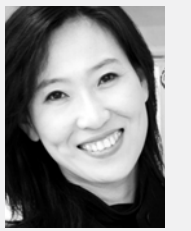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화하는 작업과 더불어 동시대와 어울리며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음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타래는 이번 연주회에서 ‘뱃노래’, ‘백민송이 장미’, ‘Let it be’, ‘Ob-La-Di Ob-La-Da’, ‘Billie Jean’ 등의 곡을 연주한다.

예매는 공연당일 정오에 마감되고, 현장판매 또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www.gj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책만사 올해의 책

정유정 ‘7년의 밤’



광주 출신 작가 정유정(사진)의 소설 ‘7년의 밤’(은행나무 펴냄)이 출판인들의 모임인 ‘책을 만드는 사람들’(책만사)이 선정한 ‘올해의 책’ 대상에 뽑혔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와 ‘내 심장을 쫓아’로 세계청소년문학상과 세계문학상을 잇따라 수상한 정씨가 펴낸 ‘7년의 밤’은 현재 영화화 판권도 팔린 상태다.

책만사는 출판문화 연구와 출판사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그라비, 더난, 돌베개, 휴머니스트 등 45개 출판사 대표가 모여 18년째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그밖의 선정작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동의보감: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그린비) 공룡오지세이(뿌리와의파라) ▲어학·실용·컴퓨터·경제경영=내 삶의 글쓰기(한스미디어), 아가마중(한울림) ▲비소설·문학·예술=편지투 읽는 기쁨과 슬픔(마음산책), 이스트프소 노벨라 시리즈(북스피어).

/오광록기자 kroh@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관리분석 / 최상의대출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열 유지빌딩 501 서구 세하동 일반주거지역 서구 세하동 동화마을 부근. 전. 2차선 도로접합 1,035㎡(313평)(도로 77평포함). 매매가 4억 2000만원. 식당, 사무실, 기타. 적합 건물매매(용봉지구) • 북구 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367㎡(111평) 3층 건물3층 598.8㎡(181평) 매매가4억9000만원. 보증금6,000만원 월330만원. • 북구 오치동 오치주공앞 대로변 대지298㎡(90평). 건물5층875㎡(265평). 매매가 9억9000만원. 보증금2000만원 월620만원. 상권양호. • 동구 소태동 대아파트 부근. 잡종지. 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가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 완도 독섬 매매. •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 화순군 도곡면 현산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야마. 2차선 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6만원. 010-3616-8698. 062-233-2222

동명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광주상가건물 5800㎡매매가 58억(중지34억) 직영운영시 연간순수익 8억(월1000만원) 주차시설완비 • 광주최고 핵심상권 상가매매 29억(보증금3억) 월1700만원 용지10억 유영랜드 전문업종 • 광주중상위 상가대지 253㎡건물996㎡매매가15억5천만원(보증금2억) 월850만원(상업용 특수상권) • 광산구 청단지구 상가대지482㎡. 건물711㎡매매가14억9500만원 (보증금3억) 월800만원(상업용 유영인구양용) [단양 전월임대 및 부지매매] • 수북면 대방리 2510㎡주택2동(7/24, 슬라브) 198㎡매매가3억8천만원(조정가)상인산. 병풍산조양. 남향. 전디밭조성. 주변경관최상 • 수북면 대방리 전월부지(대지)572㎡매매가8200만원 [아파트매매] • 광산1층미트231㎡ 2층주택135㎡매매가5억5천만원(용지2억) 고매출 소유자9년째 직영중 [신축 모텔 매매 및 임대] • 신축무인텔 임대 대지 1117㎡건물1454㎡객실237개 보증금5억. 월1800만원 • 신축모텔 매매 대지605㎡건물1360㎡객실32개. 매매가28억 원(용지12억) - 매입후 임대시 보증금5억. 월2200만원 가능함. [고시원 매매] • 용봉동 대지310㎡건물618㎡(65실)매매가7억9천만원(용지3억. 월수입1200만원) [토지매매] • 광산구 수원지구 자연녹지지역 신도8로8차선 (인양동)부근 - 대지 15,000㎡ 매매가39억(월1000만원) 상영중 - 대지 15,440㎡ 매매가 15억6천(월1000만원) (월1000만원) (월1000만원) [목욕탕 매매] • 대지453㎡건물2011㎡매매가19억(용지10억) 기타상가수입 보증금 2천만원. 월700만원 상영중 • 대지443㎡건물1237㎡매매가18억5천만원(용지3억5천만원) 기타상가수입 보증금3천만원. 월1500만원 상영중 [유영랜드차이즈 전문 식당 임대] • 유영랜드차이즈 전문식당 1층 330㎡ 보증금5천만원. 월3000만원 시골마을. 시설최상 고매출 주차장 완비 매출장부 공개 • 유영랜드 1층330㎡ 보증금1억. 월1000만원 시골마을. 시설최상 임대매출500만원 [부동산 구함] • 상가건물, 담양 장성 전원주택부지 등 부동산 구함 대표전화 010-3180-9211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얼은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인양동)부근 - 대지 15,000㎡ 매매가39억(월1000만원) 상영중 - 대지 15,440㎡ 매매가 15억6천(월1000만원) (월1000만원) (월1000만원) [목욕탕 매매] • 대지453㎡건물2011㎡매매가19억(용지10억) 기타상가수입 보증금 2천만원. 월700만원 상영중 • 대지443㎡건물1237㎡매매가18억5천만원(용지3억5천만원) 기타상가수입 보증금3천만원. 월1500만원 상영중 [유영랜드차이즈 전문 식당 임대] • 유영랜드차이즈 전문식당 1층 330㎡ 보증금5천만원. 월3000만원 시골마을. 시설최상 고매출 주차장 완비 매출장부 공개 • 유영랜드 1층330㎡ 보증금1억. 월1000만원 시골마을. 시설최상 임대매출500만원 [부동산 구함] • 상가건물, 담양 장성 전원주택부지 등 부동산 구함 대표전화 010-3180-9211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